

# 제57회 정기총회 개최

## 새 총회장에 양영우목사, 새 총간사에 정수환목사 선출



양영우 총회장



장경태 부총회장



신대영 부총회장



이명중 서기



박성균 부서기



김수생 회계



정수환 총간사

2023년 10월 8일(주일) ~ 10일(화), 재일대한기독교회 제57회 정기총회가 '메마른 땅에 은혜가 샘솟는 교회' (이사야44: 3)라는 주제로 東京教会에서 개최되었다.

8일(주일) 오후 6시부터 부총회장 김일환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총회장 나카에 요이치목사가 '메마른 땅에 은혜가 샘솟는 교회' (사44: 3)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부총회장 양영우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했다.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헌금이 있는 후 최정강 명예목사의 소천자 추모의 말씀과 기도가 이어졌다.

개회예배가 끝난 후, 전체 총대 143명 중 참석 총대 119명 확인으로 회의 개회가 선언된 후, 2박 3일의 정기총회 일정에 들어갔다. 먼저 의사 일정을 위해 운영위원 인준과 회순 채택이 이뤄진 후, 신입 총대 소개, 전 총회장 및 부총회장 소개, 내빈 소개, 제56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승인했다.

첫 날 곧바로 선거에 들어가 총회장에는 양영우목사(武庫川), 부총회장에는 장경태목사(船橋)와 신대영장로(東京希望)가 선출됐다.

둘째 날은 경건회(사회: 박영자목사, 설교: 정원원목사)후 어제 선거에 이어 총간사에 정수환목사(新居浜グレース)가 선출됐다. 그 외 임원은 서기: 이명중목사(横浜), 부서기: 박성균목사(和歌山第一), 회계: 김수생 장로(名古屋)가 선출됐다. 임원선거와 회의 사이에 각종 보고와 내빈 소개와 인사말이 있었다. 이번 내빈은 다음과 같다.

· 미국장로교(PCUSA)한인교회전국총회(NCKPC) 총회장 권준목사,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김창주목사,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태동화목사,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무 문창국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부총회장 정태진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부총회장 윤택진장로, · 일본기독교단 총회의장 雲然俊美목사, · 일본그리스도교회 대회의장 有賀文彦목사, · 일본기독교

교협의회(NCCJ) 의장 吉高叶목사, 총무 김성제목사.

점심식사를 마치고 위원장을 추천받아 인준하고 상임위원회를 조직한 후, 전 총회장 조영철목사의 사회로 <신/구 상임위원 교체식>이 진행되어 양영우 신임 총회장으로 교체되었다. 새로 선임된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 선교위원장: 조영철목사(大阪北部), · 교육위원장: 김신야목사(横須賀), · 사회위원장: 이상경목사(川崎), · 신학교시위원장: 김성효목사(熊本), · 신도위원장: 양양일장로(大阪), · 헌법위원장: 나카에요이치목사(広島), · 구제기금위원회: 요시이히데오장로(京都), · 재정위원장: 김수생장로(名古屋), · 평화통일회의준비위원장: 구자우목사(東京希望), · 헌법/규칙 등 개정 검토위원장: 백승호장로(神戸), · 캐나다장로교회가 日선교100주년기념사업 준비위원장: 김병호목사, 감사: 고제도장로(名古屋).

계속해서 위원회 조직, 현의안 심의, 청년회 대표의 인사 등이 있었고, 저녁식사 후 각 위원회가 진행되면서 둘째 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셋째 날은 경건회(사회: 신치선목사, 설교: 김성효목사)를 시작으로 의사 일정에 들어가 각 위원회의 활동계획 보고와 남은 현의안을 심의하였다. 3일간 결의된 주요 현의안은 다음과 같다,

- (1) <캐나다장로교회 在日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건
  - (2)특별위원회 <찬송가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설치하는 건, <평화통일회의준비위원회>와 <헌법/규칙 등 개정 검토위원회>의 계속 설치가 승인.
  - (3)구제기금위원회의 '교역자 퇴직 후 지원급여 규정 개정' 의 건
  - (4)關西지방회 규칙 변경의 건.
  - (5)中部지방회 <四日市교회 해산>을 승인하는 건.
  - (6)關西지방회 <大阪南部교회 해산>을 승인하는 건.
  - (7)關東지방회 <大宮교회 해산>을 승인하는 건.
  - (8)기타, <KCC>, <RAIK>, <서남KCC> 이사 및 감사 승인의 건. 마지막 예산안 심의와 승인이 있는 후 폐회예배로 이어졌다.
- 부총회장 장경태목사의 사회, 부총회장 신대영장로의 기도, 총회장 양영우 목사의 '회복과 부흥' (요일2: 21~24) 제하의 설교와 폐회선언이 있었다.

# 제57회 총회 위원회 각 조직 및 활동계획

## ●선교위원회

### <조직>

- 위원장 : 조영철
- 위 원 : 채은숙(서기), 송복희(회계), 강장식, 나카에요이치, 김성효, 김병호



### <활동계획>

- (1) 각 지방회 전도집회 지원
- (2) 선교사 영입 문제와 협력체제 구축
- (3) 이단종교 경계 교육 및 홍보
- (4) 재일諸의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교 방안 연구 및 실행
- (5) 다음 세대를 위한 AI 선교정책 구상

## ●교육위원회

### <조직>

- 위원장 : 김신아
- 위 원 : 이정자(서기), 채은숙(회계), 김혜진, 김혜심, 이상덕, 광용길, 양율자(준)



### <활동계획>

- (1) 목사/장로 수양회: 2024년 가을 실시
- (2) 목회자 수양회 : 2025년 여름 실시
- (3) 디아스포라 한인협의회(2025년) 참여
- (4) 상기 기획을 위해 매월 1회 zoom 회의 개최

## ●사회위원회

### <조직>

- 위원장 : 이상경
- 위 원 : 손신일(서기), 신용섭(회계), 김성태, 이대중, 광용길, 함미라, 이근수(준), 사토 노부유키(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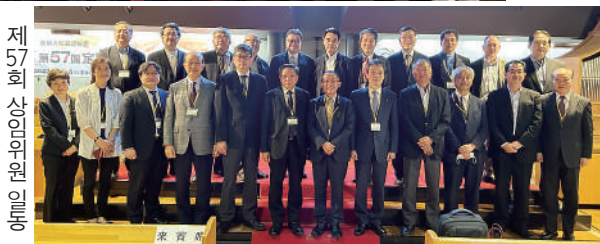


### <활동계획>

- (1) '부기련'의 이번 회기는 의장교단으로서 행사를 담당한다.
- (2) KCCJ 인권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3) 인권주일을 위해 기도문, 교독문을 만들어 배포한다.
- (4) 재난을 위해 매년 총회 성탄헌금에서 20만 엔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고 재난시 요청이 있을 때 사회위원회에서 회의하여 지원 등을 결정한다.
- (5) RAIK, KCC, 서남KCC, 외기협 등과 연대하여 집회나 행사 등에 인력 등을 파견하는 등 협력한다.



제 57회 사회위원회 위원



제 57회 교육위원회 위원

## ●신학교시위원회

### <조직>

- 위원장 : 김성효
- 위 원 : 박영자(서기), 김용소(회계), 이명충, 이진용, 이중재, 박성균



### <활동계획>

- (1) 목사, 전도사, 선교사 고시 실시
- (2) 학습/세례문답집 개발간
- (3) 목회자 계속교육 계획 및 커리큘럼 작성

## ●신도위원회

### <조직>

- 위원장 : 양양일
- 위 원 : 김성태(서기), 고경미(회계), 김성언, 조현규, 최미혜자, 이민례



### <활동계획>

- (1) 전협 창립 60주년 기념집회, <청년의 날> 제정 70주년 기념 행사를 중심으로 전협 각 지역 청년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추진
- (2) 전국 성경강연 캐러밴(2023년 9월~2024년 5월 예정)의 전면 실시와 각 지방회 신도들과의 대화 교류에 힘쓴다.
- (3) 전국 여성회, 각 지방회 여성회와의 연계 및 여성회와의 협력을 도모한다.
- (4) 31세~49세까지의 성인 신도(청년)의 동료 만들기를 시작으로 지방회 전국 차원의 조직화에 착수한다.
- (5) 전국 장로회와의 연계 및 교회 발전을 위한 협력을 실천한다.
- (6) 일본기독교단, 일본그리스도교회를 중심으로 타 교단과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전개한다.
- (7) 다민족 공존/다문화 공생의 선교활동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다른 위원회와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 ●헌법위원회

### <조직>

- 위원장 : 나카에 요이치
- 위 원 : 야나기마치 이사오(서기), 황문석(회계), 김근식, 최광일, 백승호, 김성효



### <활동계획>

- (1) 헌법위원회에 상정되는 헌법/규칙 등에 대한 견해나 해석 요청에 대해 대면/비대면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
- (2) 헌법/규칙 등 개정 검토위원회' 활동에 협력하여 총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 (3) 개정된 총회 헌법/규칙집을 정리하여 발행한다.
- (4) 지방회, 교회, 각 기관을 연대하여 헌법교육 등을 실시한다.



신규 총회장 교대식



### ●구제기금 위원회

#### <조직>

- 위원장 : 요시이 히데오
- 위 원 : 김승정(서기), 황유석(회계), 강장식, 양창희, 김정명



#### <활동계획>

- (1) 구제기금의 안정적 지급 및 운용을 추진한다.
- (2) 구제기금 고갈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현금을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재정위원회

#### <조직>

- 위원장 : 김수생
- 위 원 : 이영구(서기), 최재훈(회계), 요시이히데오, 백승호, 고문국



#### <활동계획>

- (1) 총회 재정의 안정화 및 건전화
- (2) 과년도 미수금 대응(관동, 중부, 관서) 및 계획안 작성
- (3) 니시야라이교회에 대한 대부금 상환 실행
- (4) 특별회계의 정리
- (5) 총회 부담금 산출 방법 검증

### ●평화통일회의 준비위원회

#### <조직>

- 위원장 : 구자우
- 위 원 : 김성연(서기), 박영원(회계), 김명균, 김용소



#### <활동계획>

- (1) 총회 평화통일주일에 '공동기도문'을 작성하여 전국교회에 배포.
- (2) 해외의 한반도 화해와 평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
- (3) 평화통일 관련 온라인 세미나 계획.



일본그리스도교회  
有賀文彦의장인사



일본기독교단  
豊然俊美의장인사



NCCJ  
吉高叶의장인사



정연원목사에 의한  
경건회설교



여성총대와 임원

### ●헌법 규칙 개정 검토 위원회

#### <조직>

- 위원장 : 백승호
- 위 원 : 야나기마치이사오(서기), 황문석(회계), 이대중, 고문국, 윤선박(준), 나카에요이치(준), 최미혜자(준), 요시이히데오(준)



#### <활동계획>

- (1) 최종목표로, 1년 후 제58회 정기총회에 헌법/규칙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개정안 작성 및 검토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다.
- (2) 개별목표로 헌법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원회 논의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회의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실시한다.

### ●캐나다장로교회 在日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 <조직>

- 위원장 : 김병호
- 위 원 : 조현규(서기), 김혜영(회계), 허백기, 손신일, 정시운(준) David McIntosh(준), 이시바시마리에(준)



#### <활동계획>

- (1) 제일 캐나다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자료 등을 수집하여 기념지를 만든다.
- (2) 캐나다 선교사 자료실을 KCC에 설치한다.
- (3) '제일 캐나다 선교사와 KCCJ'를 주제로 일본과 캐나다에서 강연회를 개최한다.
- (4) 기념식 개최(일본) 2027년, 제59회 정기총회 때.

### ●감사

#### <조직>

- 위원장 : 고재도
- 위 원 : 박영원, 정광남, 이중재, 김정명



새 총회장과 새 부총회장



새 서기와 새 부서



여성회에 의한 성가대



폐회에배 때의 총회장 설교



2024년 신임원 선출

# 2024년 신임원 선출 공동대표 두명 체제로 활동 전개



한선영 공동대표

윤홍일 공동대표

2023년 9월 16일 청년회전국협의회(전협) (전협)는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해 새 임원을 선출했다. 공동대표를 한선영 전도사(오사카), 윤홍일(교토)이 맡고 임원으로 엄지용(오

코하마)이 전협 활동을 함께 한다. 그동안 지방회·개교회 방편을 통해 쌓은 전국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신앙을 지키는 각 교회 청년들과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전국 교회 여러분께 지속적인 지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 윤홍일 공동대표)

## <주소 변경>

金承熙牧師

〒661-0033 兵庫県尼崎市南武庫之荘2-24-32-215

E-mail : seunghee.1229@hotmail.com

電話 : 080-4205-4673

## <救済基金委員会からの報告>

救済基金委員会委員長 吉井秀夫

表1. 救済基金 (2022年9月~2023年8月) 会計報告

収入の部 単位: 円		支出の部 単位: 円	
項目	金額	項目	金額
献金	10,000	救済基金の支給(13名)	4,680,000
受け取り利息	182,160	支払い手数料	18,840
小計①	192,160	小計②	4,698,840
前年度繰越金	66,125,073	次年度繰越金	61,618,393
総合計	66,317,233	総合計	66,317,233

資産の部		負債の部	
科目	金額	科目	金額
【現預金】	51,958,638		
ゆうちょ銀行 普通預金	11,296,040		
SBI銀行 定期預金	40,662,598		
【貸付金】	3,759,755		
総幹事住宅 建築資金	3,759,755	負債合計	0
【立替金】	5,900,000	純資産の部	
沖繩教会	5,900,000	【繰越利益剰余金】	
		前期末残高	66,125,073
		当期純損失(①-②)	-4,506,680
		当期末残高	61,618,393
		純資産合計	61,618,393
資産合計	61,618,393	負債・純資産合計	61,618,393

【対象者】担任牧師及び、総会機関(KCC、総会事務所、RAIK 全国教会女性連合会)において経歴期間の合計が10年以上あって退職された教役者とその遺族配偶者で、年齢や収入条件 (156万円以下配偶者含) があります。詳しくは、各地方会の任職員、救済基金委員にお訊ね下さい。毎年申請制で総会期決算の8月中の申請と各地方会任職員会の承認が必要です。

【申請方法】 毎年の申請制で、収入条件には市区町村が発行する昨年分の所得証明書が必要です。各地方会の任職員会で毎年8月までに対象者の認定を行った後、救済基金委員会で給付の受け付けを行います。

【基金について】 旧年金基金の解散、清算後の残金を活用して、隠退後の教役者と遺族師母任の生活支援を目的に救済基金が設立されました (一律支給3万円/月)。

【募金について】 現状の収支から基金が枯渇する年数は約12年です (表2)。今後、受給者の増加と共に基金枯渇年数は短くなります。昨年から基金会計を福音新聞に載せて、本基金に賛同される個人や教会から献金を募っていますが、その認知度は低い状況と思われます。本委員会では基金の維持・管理に取組みます。全国信徒の皆様のご理解とご支援、よろしく申し上げます。

表2. 対象者数と救済基金が枯渇する年数試算

救済基金残高		61,618,393	枯渇年数
支援額/月	対象者数	支出/年	
30,000	14(今期+1名)	504	12

募金の振込先 ゆうちょ銀行  
 記号10180 口座番号00569901  
 名称 在日大韓基督会総会 (救済基金)

#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제15회에 참가하여

정시온 전도사

아시아기독교협의회(Christian Conference of Asia: CCA) 제 15차 총회가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있는 도시 코타얌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소서(God, Renew Us in your Spirit, and Restore the Creation)’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CCA 총회는5년에 한 번 열리지만 COVID-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여파로 이번 총회는 8년 만에 개최됐다.

1957년 세계 최초의 지역적 에큐메니컬 조직으로 창설된 CCA는 아시아에 있는 6500만 명의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99개 회원 교회와 17개 전국교회협의회 또는 기독교협의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서쪽으로는 이란에서 동쪽으로는 일본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네팔에서 남쪽으로는 뉴질랜드까지 이른다.아시아 각 지역에서 각자의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총회 전 사전대회도 다양한 행사장에서 열렸고, 나는 그 중 아시아 에큐메니컬 <이민 제언활동 네트워크(AEMAN)> 포럼에 참석했다. AEMAN 포럼에서는 아시아 이주민·이주민 노동자의 권리를 교회가 어떻게 지원하고 옹호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틀과 총회 개최일 오전까지 사전대회가 진행됐으며 사전대회마다 아침과 저녁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 아시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직종, 연령, 성별의 참가자와 함께 어울림의 시간을 가졌

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랑카라 마도마 시리아 교회 사제이자 인도 성경학회 회원인 P.G.조지사제의 <디아스포라에서 아시아 이주민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이라는 제목의 성경적·신학적 고찰 강연이었다. 사제는 강연에서 “이주민들은 공간의 틈에 살고 있다” 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이 틈에 사는 사람들과 이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바로 제일대한기독교회의 존재는 틈속에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전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다시 한번 아시아 간에 연대의 중요성과 각 지역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사명, 그리고 평소에는 만나지 못한 같은 뜻을 가진 동지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